버려진 동물의 마지막 보금자리

유기견 등 키우는 태국사찰
일명 '마 왓(maa wat)' 인기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국가인 태국의 곳곳에 '마 왓(maa wat)'이라고 불리는 절들이 많다. '마 왓'이란 태국어로 '개가 사는 절'이라는 뜻. 태국의 절마다 개들이 가득한 이유를 7월 14일 일본의 '니프티 뉴스'가 소개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은 불교의 선·악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특히 살생에 대한 악업을 강하게 믿는다. 또 인간과 가까운 동물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속설이 있어 반려동물을 매우 아끼고 돌본다.

그렇기에 부득이 반려동물과 헤어져야할 때는 거리에 두는 것보다 사찰에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 놓아주었다가 사고로 죽거나 병에 걸리면 원래 주인에게 큰 악업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절에 버려진 개들을 다시 버릴 수도 없기에, 사찰의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돌보면서 '마 왓'들이 탄생했다.

방콕에 소재한 한 마 왓의 스님은 "율장에 출가자들은 하루 한 끼만을 먹고, 남는 음식은 땅에 묻으라고 한다. 하지만 개들이 생기면서 남는 음식을 먹이로 주고 있다. 개들 덕에 남는 음식으로 보시행을 실천하게 됐다"며 웃었다.



스님들 주위에서 놀고 있는 개들.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살생 따른 악업 믿는 태국
거리에 동물 놓아주기보다
사찰에 풀어주는 일 잦아
코끼리 등 키우는 사찰도

이 스님은 또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도 지역주민분들이 마 왓에서 온 스님에겐 일부러 음식을 더 보시하시곤 한다"며 지역주민 역시 개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참배를 오는 주민들 중엔 사료나 먹이를 들고 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마 왓에 참배를 온 한 신자는 "버려지는 개들 중엔 '잘 짖는다'거나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 그런데 인욕과 자비를 수행하는 스님들이 밥을 챙겨주며 보살피면 개들의 성격이 바뀐다"며 "개의 성격이 바뀐 소식을 듣고 원 주인이 데려가도 곧바로 절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개들이 스님들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 신자는 "절의 개를 키우면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마 왓에서 강아지를 데려가곤 한다. 절의 개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성격이 온순해서 모두가 좋아한다"고 전했다.

마 왓의 개들에 대한 인식은 이미 태국 전체에 일반적으로 퍼져있다. 보통 태국의 속어나 유행가에도 '절의 개' '마 왓'이라는 이름은 게으른 사람이나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절에 사는 개들이 하루 종일 자고, 그늘에서 늘어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태국에서는 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보살피는 사찰들이 존재한다. 보통은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돌보지만 코끼리나 호랑이 등을 보살피는 절들도 있다. 특히 코끼리들은 공연이나 목재 운반 등의 노동을 하다가 늙어서 오갈 데가 없는 코끼리들이다. 보통 이러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나 원래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사찰에 오게 된다. 또 뱀이나 쥐를 돌보는 절들도 있다. 태국 사람들은 이러한 동물들은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기에 더욱 참배자를 모은다.



티베트인 무슬림들과 대화 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 이슬람 공동체 만나다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와 평화 기원

지난 7월 14일 '더 티베트 포스트'는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7월 13일 달라이라마는 북인도 잠무-카쉬미르 주의 누브라 지방을 방문, 현지의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와 만났다. 이들은 5대 달라이라마 시절 라싸에 정착한 무슬림들의 후손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중앙티베트에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왔으나 공산정권의 박해를 피해 누브라 지방으로 옮겨왔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떠난 망명지에서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그 자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밝히면서 "최근 라닥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슬람의 두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지역 지도자들을 함께 만났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인도에서 수니와 시아간 분쟁 없이 조화를 이뤄 살고 있는 모습은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에게 사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달라이라마는 새롭게 완공된 이슬람 사원인 디스켓 자마 마스지드를 방문, 무슬림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했다. 여기서도 달라이라마는 무슬림 원로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고, "모든 종교들은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사회와 대중이 실수를 할지라도, 종교지도자들이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3일부터 잠무-카쉬미르주를 방문, 현지의 불교사원들을 방문하며 법회를 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마트폰으로 본 불교성지 순례길

퀸즈랜드대 제니퍼 로우, 그래픽 지도 분석

성지 주변 원형 산책로 등
순례 대중 인기 실감케 해

달리기 코스를 소개하는 히트 맵(heat map)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Strava)'에서 불교 순례길의 몇 가지 법칙이 발견됐다. 퀸즈랜드대학의 박사학위자 제니퍼 로우(Jennifer Rowe)에 의해서다. 로우는 지난 1월 스트라바에서 실수로 미군 비밀 군사기지가 노출돼 혼란이 일었을 때, 이를 유심히 보던 중 불교 성지 주변의 특별한 법칙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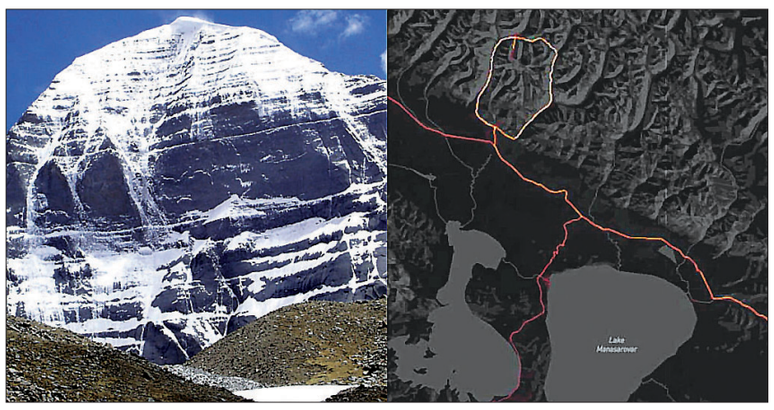
불교언론 '라이언스로어'는 7월 12일 "로우가 '스트라바'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며 "바로 불교 성지 주변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경로"라고 말했다.

로우가 스트라바에서 이 같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히트 맵의 특성 때문이다. 히트 맵은 '열'을 뜻하는 히트와 '지도'를 뜻하는 맵을 결합시킨 단어로, 일정한 이미지 위에서 열 분포 형태에 따라 그래픽으로 나타낸 지도다. 스트라바 등 그래픽 활용 앱에서는 방문자의 마우스 클릭을 열분포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 클릭이 많이 발생한 장소일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로우의 연구는 티베트인의 경험과 그들 문화 보존에 집중한다. 로우는 함께 일하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네팔·티베트 등 불교 성지에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불교 성지들이 스트라바 지도에 붉게 노출될지 아닐지 궁금해 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성지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신앙심을 표한다. 종종 명상의 형태로 순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삶의 윤회에 집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 이끄는 팔정도(八正道)를 걷는다. 순례는 대부분 부도탑, 불상, 사원, 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로우의 분석에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전세계적 불교 성지 주변으로 원형의 순례길이 포착됐다. 특히 로우는 불교 성지 주변을 따라 중심으로 이르는 산책로가 형성된 점도 발견했다.



그래픽 지도 앱 스트라바(사진 오른쪽)에서 티베트 라싸 지역의 조캉 사원 주변으로 1km 가량의 산책로가 포착된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이와 관련 라이언스로어는 로우의 분석과 함께 스트라바 지도 속 티베트·네팔 등 불교 국가의 대표적 성지 주변을 공개했다.

티베트 라싸 지역에서 불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간주되는 조캉(Jokhang) 사원을 순례한다. 이 사원 주변으로 약 1km 코스의 좁은 산책로가 형성돼 있다. 티베트의 또 다른 불교 성지, 카일라쉬더산은 그 주변으로 원형 형태의 코스가 나타나 있다. 이는 해마다 수천 명의 불교도들이 이곳을 순례하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밖에 네팔 최대 불교 성지 보드나트 스투파를 비롯해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사원인 남걀 사원, 부탄의 탁상 사원, 부탄의 팀푸 포르텐 등에서도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불교소재 영화 3일 만에 종영

'아수라' 초반 흥행 참패… 제작사 "수정 거쳐 재개봉"

중국 영화사상 최대 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아수라'가 개봉 3일 만인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스크린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제작사 측의 공식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초기 흥행 실패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 '아수라' 제작사 쩐찌엔 필름 스튜디오 측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6년 동안 본 영화에 참여한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에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다. 투자자 전원 결정을 거쳐 베이징에서 일요일 저녁을 마지막으로 상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갑작스런 폐막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화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재개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아수라'는 불교를 소재로 한 판타지 서사 작품이다. 티베트 고대 불교신화에 근거해 축생계·아귀계·지옥계 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연을 맡은 중국의 '라이징 스타' 오뤼를 비롯해 홍콩 배우 양조위·유가령 부부 등이 출연해 제작 발표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흥행 참패였다.

'할리우드 리포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 '아수라'의 평점은 6.4점(10점 만점)대에 그친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3.1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너무 졸리다" 등 혹평을 쏟아냈고, 일부 높은 평점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리포트' 등 외신은 1억1000만 달러(한화 약 1260억 원) 이상의 제작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지난 13일 개봉한 후 주말 동안 단 710만 달러(한화 약 84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초반 흥행에 참패한 것을 가장 큰 종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아수라 투자자들은 일부 경쟁 세력의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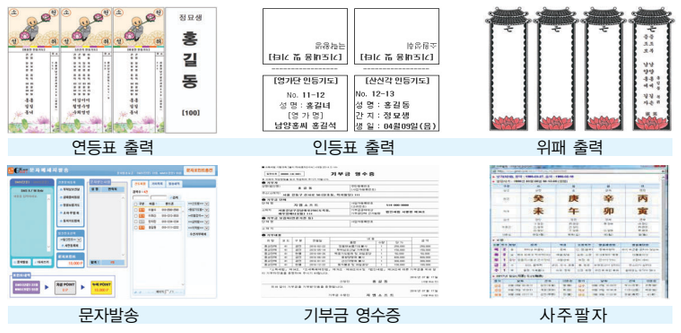


사찰신도 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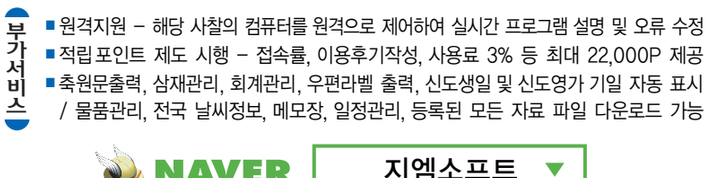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